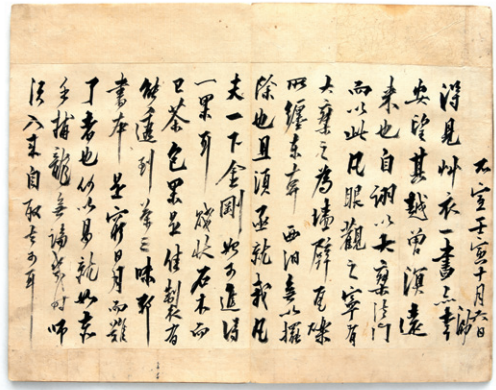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

“나 같은 범부에게 금강저를 맞아야...”

대정은 척박한 땅, 모슬포에 위치한 이곳은 원주민들조차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라 여겼던 곳이다. 모슬포에 위치한 화진포는 추사의 무사안녕을 기원해 초의의 상상으로 그린 (제주화복진도)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향기이다. 모슬포를 거쳐 대정에 도착한 추사. 그는 제주 적거지에서 초의가 오기를 기다렸던 듯하다. 대정에서 2년을 지낸 후, 초의에게 보낸 편지에는 초의자를 극찬한 대목이 눈에 띈다. <<완당전집>>(여초의)17신에 수록된 이 편지는 <<벽해타운첩>>에 친필본 편지가 수록되었기에 1842년 10월6일에 쓴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도판은 추사의 친필편지이다.

드러난다. 굳은 약속에도 사정이 여의치 않았던 초의이지만 “세속에 걸림이 없다고 장담”했던 터였다. 연이어 무산된 초의의 제주행을 무엇이 분주해 오지 못하느냐는 추사의 질책은 “어찌하여 대승이 장벽이나 와력에 얽혀 이리저리 분주하여 그 상황을 떨쳐 버리지 못합니까”라고 한 대목에서 더욱 분명해진다. “나 같은 범부에게 와서 금강저(金剛杵)를 맞아야 일과를 얻는다”고 한 추사의 쾌변(快辯)은 탈속한 사람에게나 통하는 말이다.

세상에 대한 관심조차 사라진 그가 자신의 처지를 ‘목석같은 뿐이’라고 한 것은 해탈한 경지인가.

아니면 세상에 무관심을 그리 표현한 것인가. 제주시절 차와 불교에 심취했던 추사였으니 이는 분명 탈속한 그의 삶을 드러낸 말이라 여겨진다.

또한 초의가 보낸 차가 있으니 사막에서 만난 오아시스처럼 그의 마음에 갈증을 해소했을 것이요, 맑고 청량한 초의차는 울적한 그의 마음을 평안하게 했으리라. 그가 “그대가 보내준 차는 과연 가품입니다. 능히 다삼매를 깨웠었다”고 한 초의자의 평가는 최고의 찬사로, 초의자의 완성을 함께 축하한 말이기도 하다. 필자가 이 대목을 주목하는 연유는 초의자의 완성 시기를 밝힐 수 있는 단서이기 때문이다. 한편 초의가 추사에게 글씨를 부탁한 듯, 완성도 높은 글씨는 간단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추사의 변은 그의 예술적 진취를 또렷하게 드러낸 것이라 하겠다.

초의 만나고 싶은 심정 애써 감춰
초의차 ‘다삼매’로 극찬
‘초의차’ 완성시기 짐작케 해

有能透到茶三昧也 書本是窮日月而難了者也 何以易就如赤手捕龍 無論幾時 師須入來 自取去可耳 不宣

이 편지는 초의에게 보낸 추사의 답신 편지이다. 제주도를 방문하려는 초의의 계획이 여러 차례 추사에게 전해진 듯, 바다를 건너 제주에 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모를 리 없는 추사였기에 “편지를 얻는 것만도 다행인데 어찌 아득하면 바다를 건너 멀리까지 오기를 바라느냐”고 말한 것이다.

그의 속내야 얼마나 초의를 만나고 싶었을까 마는 초의를 아끼는 추사의 살가운 정이 오히려

소리로 불법 전하는 시대의 아난, 魚丈

<어장>

어산어장 동주원명 스님 (홍원사 회주)

1957년, 초등학교 4학년의 이조원은 부친 동은종선 스님을 따라 온양 관음사에 간다. 그는 거기서 처음으로 범패를 듣는다. 부친의 범패 소리를 듣는다. 중국 위주제의 아들 조식(192-232)이 어산(魚山·중국 산둥성에 있는 산)을 거닐다 들었다는 범천의 소리처럼 열한 살 조원도 설명할 수 없는 선정의 소리를 듣는다. 그리고 훗날 스님은 어장(魚丈)이 된다. 조계종 어산어장(魚山魚丈) 동주원명 스님이다. 3월 28일 서울 흥원사에서 스님을 만났다.

당시 대강백으로 알려진 대은 스님을 찾아간다. 병을 털어냈지만 그 동안의 투병으로 인해 조원의 몸은 산송장이었다. 제자로 받았던 시봉을 받기는 커녕 인제 초상을 치를지도 모를 형국이었다. 하지만 대은 스님은 “본인이 발심만 했다면 당연히 제자로 받아주지.”하며 흔쾌히 조원을 제자로 받았다. 1961년 이조원은 서울 상도동 사자암에서 대은 화상을 은사로 사미계를 받는다. 불명은 원명(元明)이었다. 원명 스님은 그때 누구도 받아주지 않을 나를 받아준 은사 스님의 은혜를 평생 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열한 살 조원은 관음사에서 범패를 들으며 출가를 생각한다. 난생 처음 듣는 그 소리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무엇이었기에 스님은 단 한번 듣는 그 소리 때문에 ‘출가’를 품었을까. 하지만 스님은 아직 어려웠다. 출가의 발원은 시절을 기다려야 했다. 세월이 흘러 조원은 열일곱 살이 되었고 대학입시 검정고시를 준비한다. 공부를 하기 위해 부친이 계시는 관악산 삼막사로 집을 찜서 올라간다. 오랜만에 범당의 범향을 본 조원은 왠지 입시공부보다 새벽예불에 신이 났다. 단번에 예불문을 열고 새벽예불 시간이 되면 저절로 눈이 떠졌다.

“중노릇 제대로 하려면 소리(범패)부터 익혀야 한다.” 막상 출가를 하고보니 스님은 범패보다는 강사가 되고 싶었다. 경을 읽고 있는 것이 좋았다. 하지만 스님은 스승의 가르침을 거스를 수 없었다. 출가의 은혜를 생각해서라도 그래야 했다.

스님은 벽은 스님 밑에서 소리를 시작한다. 제주 있는 사람은 석 달만 해도 웬만치는 하게 된다는 스승의 말에 스님은 “그래 석 달 동안 열심히 해서 석 달 후에는 강원으로 가서.”고 마음먹는다. 하지만 스님의 3개월은 4년 4개월이 된다. 벽은 스님 밑에서 1년여가 지났을 때, 스승 대은 스님은 만월의 계보를 잇는 월하문의 한 축인 송암 스님에게 원명 스님을 특별히 부탁한다. “스님이 가진 재주 꼭 다 우리 원명이한테 가르쳐 주시오.” 스승은 제자를 위해 20살 연하의 송암 스님에게 절까지 했다. 원명 스님은 송암 스님의 문하로 들어간다.

하루는 새벽예불을 모시고 난 후 조원은 범당에서 깜빡 잠이 든다. 그리고 꿈을 꾸다. 소년의 큰 누님이 다. 한 해 전에 난산으로 세상을 떠난 누님이다. 세상을 달리한 누님을 꿈에서 본 뒤 잠에서 깬 조원은 그 날부터 아프기 시작한다. 열이 나고 온몸이 아프기 시작했다.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고 병원엘 다녀와도 몸은 점점 더 아프기만 했다. 잠시 집으로 내려가야 했다. 하지만 병세는 차도가 없었다. 병세는 매일매일 빽빽이처럼 조원의 몸을 뜯어갔다. 집에 있어도 차도가 없자 조원은 꼬쟁이처럼 말라버린 몸을 이끌고 다시 삼막사로 올라간다. 1시간이면 올라갈 길을 5시간을 걸어 올라갔다. 절은 어수선했다. 주지 스님의 인기가 끝나 신임 주지 스님이 오는 날이었다. 신임 주지 스님은 대처였다. 아픈 조원을 본 주지 스님의 처가 조원의 부친 종선 스님에게 말했다. “구병시식(救病施食) 해야겠는데요.” 구병시식이란 말 그대로 ‘병에서 구해내는 의식’을 말하는데, 여기서의 ‘병’은 다른 혼령이 몸을 붙들고 있어 아픈 병을 말한다. 시식은 혼령에게 배부하는 공양인 것이다. 구병시식에 대해 듣고 난 조원은 꿈에 본 누님이 생각났다. 조원의 부친 종선 스님이 구병시식을 시작했다. 아픈 조원은 부친의 범패를 듣는다. 밤을 새워 구병시식을 끝내자 조원의 병이 거짓 말처럼 나왔다.

11살 때 범패 듣고 ‘출가’ 생각
‘구병시식’으로 죽음 넘기며 출가
선방에서 범패 의미 깨달아
대장경의 골수만 뽑아 만든 ‘소리’
45년간 3천 여회 어산 의식 집전
무형 문화재 ‘경제어산’ 보유자
“범패의 대중화...시대적 요청”

“정말 신기했죠. 언제 그랬나 싶게 몸이 멀쩡해졌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다시 몸이 아팠어요. 그 후로도 구병시식을 두어 번 다른 절에서 했는데, 얼마가 지나면 또 몸이 아팠어요. 주위에서 구병시식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다고 해서 누님의 천도재를 지냈어요. 그리고 나서는 아프지 않았어요.”

누님의 천도재를 지낼 때 조원은 많이 아팠다. 기도할 힘조차 없었다. 조원은 생각했다. ‘내가 병이 나서 죽지 않는다면 반드시 출가하리라.’ 다시 조원의 가슴 속에서 출가의 발원이 일어났다.

열일곱살의 조원은 출가한다. 부친인 종선 스님도 이 변에 말할 수 없었다. 종선 스님은 아들 조원을 데리고

신촌 봉원사. 스님은 작은 방 하나를 받았다. 저녁예불이 끝나면 대중은 절 밑 거처로 모두 돌아가고, 어둠이 내린 텅 빈 도량에서 스님은 마음껏 소리를 했다. 그날 배운 소리들을 부르고 또 불렀다. 스님은 그때 소리에 대한 발심이 새록새록 일기 시작했다고 했다. 스님은 열한 살 때 처음 들었던 소리에 다시 빠지기 시작한다. 스님의 소리는 하루가 다르게 튼튼해져 갔다.

그야말로 소리와 사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던 스님은 어느 날 지월이란 스님을 만나게 되는데, 스님은 지월 스님의 선(禪) 수행담을 듣고 선에 끌리기 된다. 스님의 가슴은 다시 부풀고 마음은 선방으로 가 앉았다. 스님은 참선의 유혹을 재우지 못했다. 송암 스님으로부터의 수학을 모두 끝낸 스님은 선방으로 갈 것을 결심하고 스승 송암 스님께 하지 문안을 올린다. 스승 송암 스님은 당황스러웠다. 이제 제대로 된 제자 하나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선방으로 가겠다고, 그동안 들인 공도 그렇고 아무튼 기가 찰 노릇이었다. ‘배신’이라고 해도 달게 받아야 할 일이었다. 주위 사람들이 이해 할 수 없었다. 송암 스님이 후계자로 지목한 이상 스님의 미래는 보장된 것이었다. 그 보장된 미래를 두고 선방으로 가겠다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섭섭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나 다른 일도 아니고 공부하러 가겠다고 할 수 없구나. 가거라. 그리고 꼭 이루어라.” 스승의 마음은 늘 그런 것이었고 제자의 욕



1966년 은사 대은 스님과 함께 찍은 사진



원명 스님은 2006년 조계종 어산어장으로 추대됐다.

찬덕불교 아름다운 등

찬덕불교가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이색 LED전구	팔각기둥등전구	주름 등	원형기둥등전구
			
칼판로카시등			영가 등
			
공단 등			극락양생등

※ 사찰명 인쇄시 제작기간이 소요되오니 예약 주문 바랍니다 ※

전선(케이블)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계는 범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 흥은사



윤장대 인등

찬덕불교가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용주사 LED 인등



보급형 위패

신상품 찬덕 LED 전구

- ※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모
- 열 발생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종류	일반전구	찬덕 LED 전구
소비전력	10W	2W
효율	10 lm/w	50 lm/w
연간전료	2146원	429원
수명보장		30,000 시간



1년 365일,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98원/1kwh



찬덕불교 www.chanduk.com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 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031) 794-6288
취급품목: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동주원명 스님은 ... 1961년 서울 상도동 사자암에서 대은 화상을 은사로 사미계를 받았고, 벽승 스님과 송암 스님으로부터 법패와 작법 전 과정을 수학했다. 1968년부터 불국사, 해인사, 조계사 등 국내외 사찰의 영산재, 예수재, 수륙재 등을 주관하며 법패의 계보를 이었다. 1977년부터 1993년까지 상도동 사자암 주지를 지냈고, 1998년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이수증을 받았다. 2005년에는 문화재청장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전수교육 조교로 지정됐다. 45년간 3,000여 회의 영산재 및 각박 수륙재 및 예수재의 범주 집전을 주관했다. 2006년 조계종 어산 어장으로 추대됐으며, 2013년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43호 경제어산의 기능 보유자로 인정됐다.

심은 또한 늘 그런 것이었다. 하늘만 쳐다보는 스승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원명 스님은 스승을 떠난다. 그리고 부안 내소사 선방에서 첫 방부를 들인다.

“선방에 가서 법패의 참맛을 알았어요. 팔만대장경 중에서 정수의 정수만 뽑아 만든 것이 법패라는 것을 알게 됐죠.” 안거가 끝나고 대중이 모두 떠난 도량에 남아 스님은 달빛 아래서 법패를 불렀는데, 법패가 선정의 극치에서 나온 소리라는 것을 그때 알았다고 했다.

스님은 해제 때는 법패수련에 정진했다. 그리고 1973년 경주 불국사 복원 낙성식에서 영산재를 이끌며 주목 받기 시작한다. 그리고 1977년, 선방을 돈지 9년 쯤 되었을 때였는데, 스님은 스승 대은 스님의 부름으로 사자암 주지를 맡게 된다. 연로하신 스승을 모셔야 함은 제자로서 두 말도 필요 없었다. 선방의 좌복이 어렵거렸으나 스승을 모셔야 했다. 이 역시 잠깐만 하려고 했던 것이었는데 16년을 살게 된다. 주지 소임 탓에 그 이후로 스님은 선방에 갈 수 없었다.

당에서 수학하고 돌아온 진강 국사로부터 시작된 우리나라 법패의 계보를 이은 동주원명 스님. 선사로서 행보는 어긋났지만 스님은 법패가 선정의 극치임을 선을 통해 깨달았다. 약 10년 만에 선방의 방부를 거뒀지만 법패의 계보를 잇는 불사는 계속되었다. 1980년 사자암에 법패의식 수련원을 열고 연수원장에

취임하여 법패 및 제반 의식을 후학들에게 전수하는데 매진한다. 조계종도 불교의식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스님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조계사 앞마당에서 매년 영산재를 시현했다. 그리고 2006년 스님은 조계종 어산어장으로 임명된다. 어산어장은 선원의 조실, 강원, 강주, 율원의 율주와 자리를 같이 하는 불교의식의 최고 ‘어른’이다.

스님은 법패의 대중화에 원력을 세운다. 법패의 대중화란 한글화(한글번역에 곡을 붙이는 작업)를 말하는 것으로 시대가 요청한 과제라고 스님은 말했다. ‘칠정례’와 ‘반야심경’은 새로운 곡을 붙여 작업을 마쳤다. 각종 예불문과 경전 등 새로운 곡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스님의 남은 불사이자 원력이다. 그리고 출가자들이 한문, 싸알리어 등 불교 공부에 필요한 기초 학문을 닦을 수 있는 수련원과 법패전문교육원을 세울 것이라고 스님은 남은 생의 원력을 밝혔다.

서울시는 1월 3일 ‘경제어산(京制魚山)’을 무형문화재 제43호로 지정하고 조계종 어산어장인 동주원명 스님을 기능보유자로 인정했다. 경제어산이란 서울과 경기 지역의 법패를 말하는 것으로 불교의식을 진흥하는 어산(법패와 범음)을 말한다. 아난이 부처님의 말씀 입에서 입으로 전했듯 동주원명 스님은 부처님의 말씀을 소리로 전하고 있다.

박재원 기자 wanihallo@hyunbul.com



원명 스님은 45년간 3천여회 어산 의식을 집전했다. 사진은 경제공 정선 추모 영산재 모습

전법일기

어르신공양, 그 불순한 의도

우리절은 한 달에 세 번 지역 어르신들께 점심 공양을 대접한다. 매년 평균 200분가량 오시는데, 1년에 한 번 전복죽을 끓일 때는 400~500분가량 참석하시고, 동짓날은 300분가량이 드신다.

이 글을 보는 주된 독자가 스님들일 거니까 솔직히 말한다. 내가 무료급식을 처음 시작할 때 순수한 뜻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뭔가 순수하지 못한 의도도 있었다는 얘기가.

내가 이 절에 부임하고 나서 두 달 후에 취임식을 했다. 도반들과 타지에서 인연맺은 불자들이 축하해 주기 위해 절을 찾아왔다. 그들이 이 부근에 와서 우리 동네 주민들에게 절의 위치를 물었지만 절을 코앞에 두고도 보성선원을 모르더라는 것이었다. 뜻밖이었다. 요즘 사람들이 남의 일에 무관심하다는 거야 익히 알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무했다. 물론 창건주 스님이 워낙 조용하게 평생을 사셔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인 줄은 상상도 못했다.

취임식을 치른 나는 어떻게 하면 우리절을 알릴까 하는 문제로 깊은 고민에 빠졌다. ‘신문에 간지를 넣어 뿌려?’, ‘현수막으로 온 동네에 도배를 해?’, ‘간판을 대문짝만하게 만들어?’ 이도저도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신문에 간지를 넣어서 뿌리는 방법은 너무 천박하게 보일 수 있었고, 현수막을 내걸어봤자 며칠 가지 못할 뿐 아니라 자칫하면 벌금을 맞을 수도 있었다. 간판을 큼직하게 하는 건 너무 속된 법새가 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좋은 소문이 나게 하는 것이었다.

소문이라는 게 그렇다. 그게 누군가의 의도에

“좋은 일 하면 좋은 소문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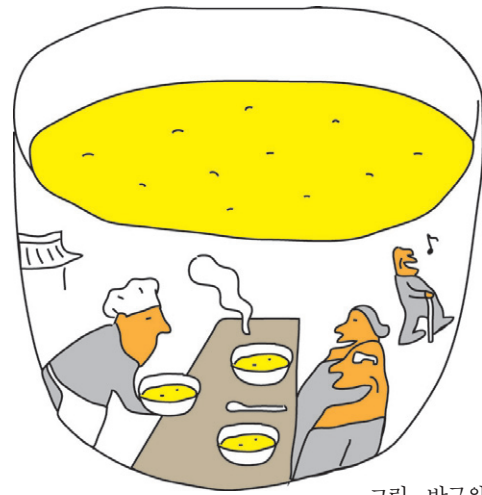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따라 나고 나지 않고 하는 게 아니었다. 좋은 소문 이든, 나쁜 소문이든 소문은 저절로 난다. 그렇다면 결론은 뻔했다.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소문이 나고, 나쁜 일을 하면 나쁜 소문이 난다.’ 그러면 어떤 일이 좋은 일인가? 자신에게 이로운 일, 득 되는 일이 좋은 일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람이 누군가. 자신에게 잘 해주는 사람 아닌가. 그래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무료급식을 시작하게 되었다.

혼자 해도 되는 일 같았으면 자주 했겠지만, 많은 신도들의 힘을 빌려야만 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처음엔 한 달에 한 번만 공양했다. 법회 때 신도들에게 공지했고 신도 대표가 경로당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어르신들께 말씀드리고 게시판에 홍보물을 부착했다. 처음엔 몇 분 안 오시더니 소문이 나면서 어르신들의 숫자가 점차 늘어났다.

한동안은 산채비빔밥만 했다. 산채비빔밥이라 하니가 고상해 보이지만 쉽게 말하면 풀만 드렸다는 거다. 가끔 하는 공양이니까 같은 음식을 드려도 문제는 없었다. 그렇지만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봐야 할 것 아닌가? 어르신들에게 어떡하고 물어봤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절에서 나물비빔밥 주는 거야 당연하지만 얻어먹는 입장에서 다른 걸 주면 좋겠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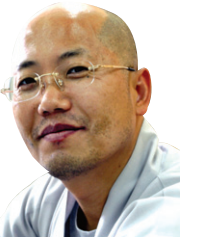
“그러면 뭘 해드릴까요?”

“다른 데 가면 쌀밥에 고깃국을 주는데, 여긴 안 되겠죠? 절이니까.”


“쌀밥에 고깃국”은 굶주림을 경험한 노년 세대의 소망 아니던가. 고깃국 끓이는 문제로 신도님들과 상의했다. 찬성도 있었지만 반대가 많았다. 반대하는 분들은 말했다. “나야 괜찮지만 신심 깊은 노보살들이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반대한다고 하지 않고 꼭 남 핑계를 댄다. 그래서 절충안이 도출됐다. 소고기를 볶아서 한 숟가락씩 얹어드리는 것으로.


첫 공양 이래 근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 지금은 한 달에 세 번 어르신들께 공양을 대접한다. 형편에 따라 소고기국이나 돼지감자탕도 끓이고, 곰탕, 육개장, 선지국, 삼계탕도 끓인다. 지금은 반대하지 않는다고? 난 모른다. 내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다. 반대에 봐야 소용이 전혀 없다는 걸 지난 5년간 충분히 학습했기 때문일 것이다.



한복 스님(재)선학원 대구 보성선원 주지



WORLD BUDDHISM LEADER



108인 선정 고승들의 수행

미얀마에서 실시한 큰스님들의 7일간의 수행

미얀마 종교성이 깜짝 놀랄 정도로 대성공을 이끌어 냈습니다.
연일 국영방송과 신문을 장식할 정도로 큰 관심을 불러 이르켰고 미얀마 연방승가회
닥터 우꾸마라 종정큰스님의 격려속에 3사 7중 큰스님들과 많은 스님들이 주관하는
의식 중에는 종교성 장관 내외 부장관 내외 차관 내외와
30여 국장들이 행사를 주관하는 대성황의 야단법석이였습니다.
성원해주신 전국의 큰스님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합장 올립니다.

세계 법왕 및 승왕 추대 500인 추진위원회

세계 불교 지도자 高僧 및 元老 선정(宗師, 大宗師 급만 동참 가능)

법왕청 및 승왕청 임시 내각 구성을 시작했습니다

법하께서도 법왕청 및 승왕청에서 활동하시겠습니까?

이력서와 자기 소개서를 보내주시시오

새롭게 거듭나는 승가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한국 불교의 대 변화와 개혁을 이루는 초석이 될 것 입니다.


세계 법왕청을 설립하고 법왕 및 승왕을 추대하고자 하는 불교사에 개인의 명예와 독선조차
 하심으로 자신을 내려 놓으시고 헌신적 희생정신으로 무언의 가르침을 행으로 보여 주십시오.
 법왕청 설립에 헌신하신 업적이 불교사의 한 페이지에 큰스님의 이름이 장식되었으면 합니다.

- 신청기간 : 2013년 5월 30일까지 선착순으로 접수
- 서 류 : 이력서(사진부착) 자기 소개서
- 접 수 처 :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신영빌딩 303호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종교법인 국제 불교 지도자 협회 이사장

한국불교 범종단 총연합 협의회 회 장

미얀마 연방정부 한국주재 미얀마 명예대사



MAHA SADDHAMMA JOTIKAD HAJA SANGGALAJA
 추진 집행위원장 大僧正 木鐸 - 慧恩
 전화 02)733-5665, 5670, 011-229-6061 / 팩스 02)733-5671